[남양주 소식] 남양주시, 주민자치 첫 연합 청소년 축제 '펀(FUN)타스틱 페스티벌' 성료 외

정향순 기자 | 승인 2026.11.09 21:48

청소년 밴드·댄스 경연과 체험 프로그램에 시민 발길 이어져…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동 기획…주민자치 협력 의미 더해



'남양주 펀(FUN)타스틱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이뉴스투데이 수도권2취재본부 정향순 기자]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지난 11월 8일 남양주시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첫 연합 청소년 축제 '2026 남양주 펀(FUN)타스틱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남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회장 최영균)와 청소년 축제 추진단(단장 장태식)이 공동 개최한 행사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으로 힘을 모아 마련했다. 각 지역 주민자치위원들로 구성된 청소년 축제 추진단은 연초부터 회의와 현장점검을 이어가며 행사 기획부터 운영, 안전 관리까지 전반적인 준비를 맡았다.

이날 축제는 오전 열린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작됐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6개소와 정약용 펀그라운드 등 청소년 시설 4개소가 운영한 10개 체험 부스에는 청소년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오후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16개 읍·면·동의 화합과 청소년의 도약을 표현한 창작 무용 '태동'이 첫 무대를 장식했다.

이어진 본선 경연에서는 밴드와 댄스 부문 청소년 대표팀들이 실력을 뽐냈다. 관객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직장인 밴드 공연과 태권무, 디제잉(DJ)쇼 등 특별공연도 펼쳐졌으며, 우수 참가팀에 대한 시상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 남양주시, 제64주년 소방의 날 맞아 소방공무원 헌신과 노고 격려



남양주시는 11월 9일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안전한 남양주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11월 9일 남양주소방서가 주관한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안전한 남양주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소방의 날을 맞아 화재와 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기리고, 소방의 사명과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과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소방 발전과 시민 안전에 기여한 김철규 소방장과 전민권 소방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했다.

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남양주소방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최 시장 취임 첫날 재난 취약지역을 함께 살피며 현장 중심의 협력을 시작했으며, 을지연습과 안전한국훈련 등 주요 재난 대응 훈련에도 함께 참여해 공조체계를 강화해 왔다.

◇ 남양주시민축구단, 2026시즌 최종전 3대1 승리…유종의 미 거둬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11월 8일 2026시즌 K4리그 최종전 현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지난 11월 8일 남양주시민축구단이 2026시즌 K4리그 최종전에서 세종SA축구단을 3대1로 꺾고 시즌을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경기에는 남양주시민축구단 구단주인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현장을 찾아 선수단과 코칭스태프를 격려하고 선전을 기원했다.

최현덕 시장은 “올 한 해 남양주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품고 매 경기 열정과 투혼을 보여준 선수단과 코칭스태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해 시민들에게 감동과 승리의 기쁨을 선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민축구단이 단순한 스포츠 구단을 넘어 시민 화합과 소통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민축구단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덕분에 최종전 승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며 “다음 시즌에는 더욱 발전된 경기력과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시민들의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민축구단은 이번 최종전 승리로 2026시즌 K4리그를 3위로 마무리했으며, 재정비 기간을 거쳐 다음 시즌에 나설 계획이다.

정향순 기자 tigerchung62@naver.com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